아시아투데이

2013년 02월 13일 수요일
019면 사회

시민청 한달만에 방문객 10만명 돌파 83.9% 만족

서울시 신청사 내 시민청이 개관 한달 만에 총 방문객 10만명을 돌파했다. 또 시민청 방문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3.9%가 시민청에 만족감을 보였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민청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평일 4200여명, 주말 48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광장 및 스케이트장, 서울도서관, 신청사와 함께 연계해 시민청을 찾아온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다.

특히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여사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과 블로그 기자단 등 각계 다양한 계층이 방문했으며 CNN과 홍콩 일간지 '명보' 등 해외 언론도 취재차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승진 기자 from-lsj@

파이낸셜뉴스

2013년 02월 13일 수요일
028면 사회

서울시 신청사內 시민청 방문객 한달새 10만 돌파

지난달 12일 문을 연 서울시 신청사 내 시민청이 하루 평균 4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개관 한 달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2일 시민청 10만번째 방문객에게 시민청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 이어폰감개 등 다양한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청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영화배우 최불암, 이광기씨 등 희망서울 홍보대사와 블로그 기자단 등 각계각층이 찾았다. 시민청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사 투어 프로그램 '신청사 통통(通通)투어'를 통해 시민청 투어가 가능하다. 투어신청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시스템(yeyak.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

매일경제

2013년 02월 13일 수요일
A30면 사회

서울 '시민청' 10만명 방문

서울시청 신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 '시민청'을 찾은 시민이 개관 한 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청을 찾은 하루 평균 방문객은 평일 4200명, 주말 4800명이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이곳을 둘러봤다.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CNN 인터내셔널' 등 국외 언론 취재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시민청을 방문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의 83.9%가 시민청에 만족했고, 87.6%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